



외교부

보도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22-487
배포일시	2022.7.5.(화)	담당부서	중남미국
담당자	윤상욱 / 중남미국 심의관 (02-2100-7420)		

「2022 한-중남미 미래협력 포럼」 개최 결과

-對 중남미 맞춤형 경제 협력방안 협의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 요청-

- 외교부가 부산시와 공동 주최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후원한 「2022 한-중남미 미래협력 포럼」이 7.5.(화) 부산에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.
 - 이번 포럼에는 10명의 중남미 장·차관급 고위 인사와 함께 우리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인사, 학계,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, 한-중남미 경제안보 및 분야별 상생 공영을 위한 맞춤형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.
 - 한편, 방한한 중남미 고위 인사들은 7.6.(수) 부산세계박람회 후보지 현장을 시찰한다.

- 박진 외교부 장관은 스페인어로 한 개회사를 통해 올해 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지난 60년간의 한국과 중남미의 우호협력 증진을 평가하면서, 윤석열 정부는 “자유, 평화,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중남미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노력할 것” 이라고 하였다.
 -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“중남미는 미래 상생을 위한 최적의 동반자로서, 이번 포럼이 자원에너지, 디지털 전환, 인프라, 그린산업, 농·어업 등 분야에서 미래 협력을 구상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” 하였다.

- 아울러, 박 장관은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부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“한국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” 면서 지지를 요청하였다.
-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부산에서 「2022 한-중남미 미래협력 포럼」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,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였다.
- 포럼 참석자들은 3개의 주제별 세션을 통해 △ 한-중남미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, 광물, 에너지 전환 협력, △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, △ 그린산업, 농·어업 분야에서 상생공영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.
 -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함께 식량, 에너지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리, 리튬 등 전략 광물자원이 풍부한 중남미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의 유망한 파트너임에 의견을 모았다.
 -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전환, 친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발전시키는 한편,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수소 에너지 및 농업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높은 협력 수요를 확인하였다.
- 이번 포럼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재한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첫 중남미 고위급 다자행사로, 우리 정부의 對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하고, 중남미 각국들과 상호호혜적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
 - 또한, 외교부는 부산에서 이번 포럼을 개최,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데 기여하였다.

붙임 : 1. 박진 외교부 장관 개회사(국문 번역본) 2. 행사 사진. 끝.